# 사랑과 충성의 장군, 이순신

의림초등학교 5학년 1반
안진서

어릴 때부터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 그 책들 속에는 항상 장군이 <난중일기>를 썼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다. 장군께서 전쟁 중에 쓴 일기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읽게 되었다. <난중일기>를 보면서 위인전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다. 먼저 자세한 날씨의 기록부터 전쟁 중에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쓴 모습에서 마치 옆에 있는 사람처럼 장군의 충성심과 성실함이 가깝게 느껴졌다. 활 쏘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전투 방법을 연구해 '학익진', '장사진' 등으로 승리를 거두고 거북선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마지막에 포탄을 맞고서도 육체의 고통을 참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라고 힘겹게 말하며 죽음 앞에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였다. 한 사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 장군께서는 위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해 낸 것이다.

또 <난중일기>에는 장군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였는지가 잘 나타나있다. 아버님 제삿날 슬퍼하는 모습과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내용에서 아들로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었다. 촛불을 밝히고 나랏일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고 피난 중인 임금님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또 통곡할 노릇이라고 슬퍼하며 원균의 모함을 받고도 백의종군하여 나라를 구하는 모습은 장군이 임금님과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해준다. 장군은 또 배고픈 부하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애쓰고 아픈 아들을 걱정하며 애끓는 사랑을 표현했다. 그리고 <난중일기>를 읽으며 장군께서는 글 솜씨도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했다. '어스름 달빛이 누각을 비치는 깊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시를 읊으며 휘파람을 불었다.' 라는 글에서 장군의 시인다운 기질을 알 수 있었고 일기의 곳곳에서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었다. 포탄이 터지는 전쟁 중에서도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잃지 않은 장군이 더욱 더 위대해 보인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 기록이지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자세히 나타나 있어서 우리 역사의 소중한 국보이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록되었다. 이렇게 개인의 일기가 세계적인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니 반성이 된다. 앞으로 일기를 열심히 써서 나의 삶을 기록하고 후에도 남기고 싶다.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본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에 성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싶다.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